片康烈의 국권회복운동과 의열투쟁

2013年

西江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韓國史專攻

朴 旻

片康烈의 국권회복운동과 의열투쟁

指導教授 崔 起 榮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4年 6月

西江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韓國史專攻

朴 旻

論 文 認 准 書

朴旻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14年 6月 16日

主審 桂 勝 範 (印)

副審 曹 凡 煥 (印)

副審 崔 起 榮 (印)

목 차

Abstract	ii
국문초록	iv
I. 머리말	1
II. 국내에서의 의병 참여와 계몽운동	3
1. 李康季 의병부대 참여	3
2. 新民會 활동과 105인 사건 연루	7
3. 慶尙道와 黃海道에서의 독립운동	13
III. 中滿洲에서의 의열투쟁	18
1. 義成團의 조직	18
2. 의성단의 활동	22
IV. 맺음말	35
참고문헌	37

Abstract

National Rights Recovery Movement and Heroic Struggle of Pyun Kang-ryul

Park kyung

Pyun Kang-ryul joine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1907 at the age of 16, starting with the Righteous Army led by Lee Kang-nyun. He returned home when he was injured in the Yangju Battle in Gyeonggi Province, and judging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regain sovereignty only by the struggle of righteous armies, he entered Soongsil School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which was being actively promoted in the provinces such as Pyeongan and Hwanghae, and he extended his activities by joining Shinminhoe. However, soon after he joined Shinminhoe, he was embroiled in the Korean Conspiracy Case which was in fact fabricated by the Imperial Japan and was put into prison.

Pyun Kang-ryul took this case as a momentum to fortify his strong commitment to the Korean independence, and started a preparation for a new independence movement. Once out of Seodaemun Prison in 1914, he went to his ancestral home of Gimcheon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to prepare for an armed struggle and was actively involved with Daehan-Kwangbokhoe which had been organized in 1915 in the city of Daegu. In 1918, he went back to his hometown to lead the March 1st Movement in Yeonbaek, Hwanghae Province.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he joined a secret armed organization called Jubidan in Hwanghae Province, which was controlled by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based in Shanghai, and he led the armed struggle as the representative of Anak Gun. But he was once again detained in Haeju Prison in 1920 for one year and two months on charges of hiding Tongnip Shinmun, the mouthpiece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collecting war funds.

When he was out of jail in January 1922, Pyun Kang-ryul went to Manchuria as an exile in November 1922 in order to take part in the Korean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in Shanghai. However, the meeting did not happen and being disappointed by the breakdown of the meeting, Pyun organized Uisungdan in Shanhaiguan in July 1923 with the aim of Heroic Struggle.

Uisungdan fought against the Japanese and pro-Japanese Koreans with strenuous activities such as collecting war funds and attacking Japanese government offices, centering Middle Manchuria including Jilin and Changchun. It expanded its forces by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networking with other provinces, and at the same time tried to sneak into Korea preparing activities such as the bomb explosion case.

In addition, Pyun Kang-ryul made a variety of efforts to improve the living standard of the peasant Koreans who were living in difficulties in Middle Manchuria, while being actively involved in the integration of independence movement organizations in the whole area of Manchuria with Yang Ki-tak who was the adviser of Uisungdan, and also he greatly influenced the organization of Jeongeuibu.

Pyun Kang-ryul was arrested in Harbin in July 1924 after a tip-off from a spy who infiltrated Uisungdan as a member. He went through a legal battle for six months, but was eventually sentenced to seven years in prison. He was put in solitary confinement and was serving time in Shinuiju Prison when his health deteriorated and was bailed out in April 1927. However, his health did not get better and he died for his country at a young age of 38, ending his involvement i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f 20 years which had started in 1907.

국문초록

본고는 독립운동가 片康烈의 국내에서의 국권회복운동과 중만주지역에서의 의열투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1892년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난 편강렬은 1907년 16세의 나이에 李康季부대에서 활동한 것을 시작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되었다. 1908년 경기도 양주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더 이상 의병활동으로는 국권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당시 서북지방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던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송실학교에 입학했으며, 新民會에 가입해 활동했다. 그러나 신민회에 가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제에 의해 조작된 데라우치 총독 암살미수사건 즉,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게 된다.

편강렬은 105인 사건 연루를 계기로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고, 새로운 방법의 독립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1914년에 출옥한 그는 선대의 고향인 경상북도 김천으로 내려가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1915년 대구에서 조직된 大韓光復會에 가담하여 활동했다. 1918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황해도 연백군의 3·1운동을 주도했다. 3·1운동 이후에는 상해임시정부의 국내 비밀군사조직인 黃海道籌備團에 참여해 안악군의 대표를 맡아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1920년 상해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은닉하고 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1년 2개월간 해주형무소에 구금되었다.

1922년 1월 출옥한 편강렬은 국외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만주로 망명했다. 그는 의열투쟁을 목표로 1923년 7월 義成團을 조직하고 길림, 장춘, 카툰 등 중만주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의성단의 주 활동은 일본인과 친일한인들을 상대로 군자금을 모금하고, 일본관공서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지방조직과 연락기관을 설치하여 세력을 넓히는 동시에 국내로의 잠입을 시도했고 폭탄사건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편강렬은 중만주지역에 거주하는 이주한인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으며, 양기탁과 함께 전 만주에 소재한 독립운동단

체의 통합을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 그 결과 1925년 남만주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단체인 正義府가 조직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편강렬은 1924년 7월 의성단에 잠입한 밀정의 밀고로 하얼빈에서 체포되었다. 6개월 간 법정투쟁을 벌였지만 결국 7년 형을 받게 되었다. 신의주형무소 독방에서 복역하던 그는 지병이 악화되어 1927년 4월 보석으로 출옥했으나 병세가 나아지지 않아 1929년 1월 서른여덟의 젊은 나이에 순국했다.

편강렬은 그동안 만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정도로만 알려져 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편강렬은 16살의 어린 나이에 의병에 가담하여 38살에 순국하기까지 한평생을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20여년의 그의 독립운동을 돌아보았을 때, 편강렬은 의병활동, 애국계몽운동, 무장투쟁, 의열투쟁,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운동 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독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I. 머리말

片康烈(1892-1929)은 한말부터 1920년대까지 국내와 만주에서 활발한 항일투쟁을 전개한 독립운동가이다. 『동아일보』 1924년 8월 9일자 「義成團의 의거, 義成團長 체포, 하얼빈에서 잡혔다고」라는 기사에 의하면,

중국 당춘(長春)에서 의성단을 조직하여 자기는 단장이 되어 부하를 거나리고 남북만으로 단이며 조선독립을 위하여 크게 활동하며 일본인 형사와 조선 밀정도 다수히 사살하였으며 조선 사람은 독립하여야 살 수 있다고 사상을 고취하던 편강렬(片康烈)씨는 수일 전에 그 부하 십여 명을 거나리고 던가던(傳家甸)으로 가서 군자금 사오백원을 모집하여 가지고 함이빈(哈爾濱)으로 드러갔든 것을 일본 경찰 관헌이 알고 경관을 비상소집을 하여 대활동을 시작하여 전기 편씨를 테포하여 남만주 어느 경찰서로 호송하였는데 그의 부하는 사방에 헤어졌다더라.

라고 하여, 편강렬을 장춘에서 義成團을 조직하여 남북만주에서 일본인 형사와 조선인 밀정을 다수 사살하고 단원들과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한 독립운동가로 소개하고 있다. 일본 경찰이 편강렬을 체포하기 위해 경관을 비상소집한 것으로 볼 때, 당시 그의 활약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기사만을 본다면 편강렬은 의성단장으로 만주에서 활발히 독립운동을 전개한 인물이며 또 그렇게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가 만주로 망명하기 이전부터 일찍이 국내 독립운동에 가담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만주에서의 활동도 정확히 소개된 바 없다.

편강렬은 1907년 후기 의병부터 시작하여 新民會 가담, 105인 사건 연루, 황해도지역 3·1운동 계획 및 주도, 상해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의 배포 및 군자금 모금 등 국내에서 여러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1922년경에는 만주로 건너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독립군의 통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1923년에는 의성단을 조직해 만주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영사관, 남만주철도주식회사병원 등 일본의 주요기관을 공격하는 등 의열투쟁을 전개했다. 즉, 편강렬은 국

내에서는 의병 활동과 애국계몽운동으로 국권회복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중만주 지역에서는 의성단을 조직해 의열투쟁, 무장투쟁,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운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의 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편강렬에 대해 그동안 학계에서 주목하지 못한 이유는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기존에 편강렬을 이해하는 데 주로 사용한 자료는 해방 후에 작성된 1950년대, 1960년대의 기록들인데, 그 내용이 너무 소략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한국사자료에 대한 DB화작업과 해외자료 수집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다수 확보되었다. 일본외무성자료 및 『本邦人在留禁止關係雜件』 등이 그러한 자료들이다. 또한 그의 만주 망명 이전의 행적을 살필 수 있는 여타 자료들도 발굴되어 그의 독립운동에 대해 소상히 밝힐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편강렬의 독립운동을 국내에서의 의병 참여와 계몽운동, 그리고 중만주에서의 의열투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의 국권회복운동에 대해서는 李康季 의병부대의 참여, 新民會와 105인 사건, 慶尙道와 黃海道에서의 독립운동 등에 주목할 것이다. 중만주에서의 의열투쟁과 관련해서는 편강렬 판결문, 진술서 등을 비롯한 일제 측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의성단의 본거지인 중만주지역과 아울러 편강렬의 체포와 순국에 대해 살피고, 그가 항일독립운동 선상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II. 국내에서의 의병 참여와 계몽운동

1. 李康季 의병부대 참여

편강렬(異名: 康宇 假名:金範五 號:愛史)¹⁾은 1892년 2월 2일 黃海道 延白郡 鳳西面 玄竹里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浙江이다. 그의 선대는 조선 영조대부터 慶尙北道 金泉 眞木(현재 慶尙北道 金泉市 禦侮面 多男里)에 편씨 집성촌을 형성하고 살았는데,²⁾ 편강렬의 가족은 그의 조부 때 황해도로 이거했다고 전해진다. 편강렬의 할아버지 片佐彦은 1860년 武科에 올랐고, 定平府使와 咸安郡守 등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 아버지 片相薰은 1890년대에 종6품 宮內府 秘書院丞을 지냈으며, 이후에는 황해도에서 養眞義塾을 설립하고 직접 경영했다.³⁾ 편강렬의 아버지인 편상훈이 궁내부 비서원승으로 고종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종을 보필하는 비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때, 편상훈은 일제에 침략에 의한 조선의 위기를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는 학교를 설립하고 후진 양성에 힘썼는데, 이를 통해 편강렬의 아버지가 자신이 느낀 조선의 위기를 자신의 아들과 후진들이 국권회복운동, 즉 독립운동에 가담하게끔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그의 아들들은 직간접적으로 모두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편강렬은 네 형제 중 셋째였으며, 둘째 형 片富烈은 황해도 연백군 3·1운동에 참여하고 1920년 연안청년회를 조직, 1922년에는 연백소작지회를 설립해 활동하는 등 황해도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계몽운동을 펼쳤다.⁴⁾ 동생 片德烈은 형 부열, 강렬과 함께 3·1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했다. 3·1운동 후

1) 異名 康宇는 족보에 적힌 것으로 그의 형 壽烈은 賢宇로 적혀있다(『浙江片氏家乘譜』下, 浙江片氏家乘譜所, 2000, p.91). 假名 金範五는 일본 측 기록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를 ‘金範五(本名 片康烈)’로 기록하고 있다(「不逞鮮人 金利賢 및 義成團組織에 관한 件(1923.12.25)」, 「不逞鮮人 動靜에 관한 件(1923.12.25)」, 「不逞鮮人 義成團에 관한 件(1924.1.8)」, 「不逞鮮人 義成團長의 脅迫狀에 관한 件(1924.1.8)」, 「不逞鮮人の 敎化團組織 其他에 대하여(1924.1.14)」,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37); 「不逞鮮人の 敎化團 組織 其他에 관한 件(1924.1.2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38)).

2) 金泉市, 『金泉市史』下, 金泉市史編纂委員會, 1999, p.1912.

3) 『浙江片氏家乘譜』下, pp.90~91.

4) 『매일신보』 1922년 9월 21일자 「延白小作支會 設立」.

상해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임되었고, 임시정부 국내실정조사원으로 고향인 황해도 연백군을 담당했다. 특히 편덕렬은 편강렬이 의성단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국내에서 의성단의 잠입을 돕기도 했다.⁵⁾ 이러한 형제들의 독립운동 참여는 편강렬이 20여 년간 독립운동을 꾸준히 전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보여진다.⁶⁾

편강렬의 독립운동은 정미의병에 참여한 것부터 시작된다. 정미의병은 1907년 7월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을 체결해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자 이에 반발한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해 봉기한 것이다. 편강렬은 1907년 16살의 나이에 의병에 가담했다고 전해지는데, 그가 의병에 가담하게 된 계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시 그가 살았던 황해도의 상황을 볼 때, 다음과 같이 의병 참여의 계기를 추론할 수 있다. 1900년부터 1905년까지 평안도와 황해도는 柳麟錫의 영향으로 위정척사론이 대두되고 있었다. 유인석은 위정척사사상의 원류인 李恒老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으며, 당대 저명한 위정척사론자이자 의병장으로 활동한 인물이었다. 그는 제천의병운동이 실패한 뒤 서간도에서 머물다가 1900년 의화단의 난을 피해 평안북도 강계로 이거하면서부터 평안도와 황해도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는 이곳 각지를 전전하면서 많은 문인들을 양성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강학을 열었으며,⁷⁾ 특히 황해도지역에서는 平山의 山斗齊, 九月山 石潭의 淸聖廟, 延安 石溪의 崇華齊, 殷栗 興道書社 등을 중심으로 강학활동을 벌였다.⁸⁾ 이러한 유인석의 활동에 영향을 받은 제자들과 주민들은 중기·후기 의병 봉기에 적극 가담하게 되었다.⁹⁾ 이와 같은 황해도 내의 분위기는 편강렬이 일

5) 『浙江片氏家乘譜』下, p.90; 「편덕렬 판결문」, 고등법원, 1921년 5월 23일, 『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군전투사자료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5, 1988.
 6) 첫째 형 壽烈 또한 부열과 함께 1908년 황성신문사에 국채보상의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었으며, 편강렬의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고 전해진다(『황성신문』 1907년 5월 25일자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浙江片氏家乘譜』下, p.90); 편강렬의 부인은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1925년 편강렬 체포 후 기록된 일제 측 자료에 의하면 그의 부인 黃溫順은 하얼빈 예수교 유치원의 보모로 일했으며, 길림성 여자 사범학교에 재학했다고 한다(「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部」(38)).
 7) 柳麟錫 저·독립기념관 편역, 「年譜」, 『(국역) 의암집』 卷 55, 제천문화원, 2009, pp.753~812; 朴敏泳, 『大韓帝國期 義兵研究』, 한울, 1997, p.66.
 8) 『(국역) 의암집』 卷 55, pp.792~793.
 9) 鄭濟愚, 「韓末 黃海道地域 義兵의 抗戰」,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1993, p.4.

찍이 의병에 참여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편강렬의 의병 활동에 대해서는 吳在植의 『抗日殉國義烈士傳』에 서술된 것을 바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편강렬에 대해 “16세에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李康季의 병장이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으며, 이강년은 편강렬을 일단 군사를 모집하는 소모장으로 삼았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편강렬의 실력을 알고 선봉장으로 최일선을 담당하게 했다. 이후 편강렬은 의병 백 여 명을 인솔해 동해안을 돌아 강릉을 거쳐 경기도 양주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패했으며, 이때 큰 부상을 입어 태백산 본군으로 돌아가 요양하던 차에 큰 형 壽烈이 찾아와 이강년과 다음을 기약하고 귀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⁰⁾

오재식이 서술한 편강렬의 의병 활동 진위 여부는 이강년의 『倡義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강년은 경상북도 문경 출신으로 1895년 을미의병 당시 유인식의 제천의진에서 유격장으로 활동하면서 의병에 적극 참여한 인물이다. 그는 1907년 일제가 군대를 해산하자 다시 의병을 일으켜 제천 점령을 시작으로 반일투쟁을 전개했다. 이강년이 쓴 『창의록』에 따르면 편강렬은 1907년에서 1908년에 걸쳐 이강년부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 계축일에 글을 지어 면내 사민(士民)들에게 게시(揭示)하였다.

편강렬(片康烈)에게 명하여 충재(忠齋) 오인영(吳寅泳)과 태은(泰隱) 추성구(秋性求)의 안부를 물은즉, 정병화(鄭炳和)라는 자가 의병이라 자칭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오·추 2사람도 매를 맞고 상처를 입어 아직도 병석에 누웠다고 하므로, 공이 크게 노하여 글을 지어 면내에 게시하였다.¹¹⁾

○ 병진일에 선암동(仙岩洞)으로 옮겨 주문하였다.

주인이 유행병에 걸려서 같이 있기가 매우 불편하므로 선암동에 옮겨 주문하였다. **편강렬(片康烈)이 모집한 군사 7명을 거느리고 진중으로 돌아왔다.**¹²⁾

10) 吳在植, 『抗日殉國義烈士傳』, 行政新聞社 出版局, 1958, p.249.

11) 「雲崗先生倡義錄」, 『독립운동사자료집』 1: 의병항쟁자료집, p.260.

12) 「운강선생창의록」, p.269.

첫 번째 인용문은 1907년 11월 이강년이 편강렬을 통하여 다른 의병장들의 상황을 알게 되어 이강년이 크게 화를 내고 글을 지어 면내에 게시했다는 것이다. 이를 미루어 보건데 이강년이 편강렬의 보고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바로 면내에 글을 게시했다는 것은 이강년이 그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1908년 1월 말 편강렬이 7명의 군사를 모집해왔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그가 군사를 모집하는 소모의 직을 맡지 않았을까 한다. 따라서 오재식이 기록한 편강렬의 의병 활동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편강렬이 얼마 후에 실력을 인정받아 선봉장이 되어 최일선을 담당했다는 것도 사실로 보여지며, 이것은 그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술 실력이나 전술 능력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려준다.

다만 오재식은 편강렬이 경기도 양주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어 태백산 본군으로 돌아갔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강년부대의 이동경로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강년부대는 제천에서 경상북도 풍기, 문경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이곳에서 이들은 일본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다시 단양·영춘·청풍 등으로 진을 옮겨가며 의병 활동을 지속했다. 이후 서울진공작전을 위해 경기도로 진주해야 했는데 일본군의 추격으로 인해 바로 가지 못하고 강원지역으로 우회하여 이동했고, 경기도 가평까지 진군했으나 4월 경 설악산 百潭寺로 물러났다. 이강년부대는 이곳 백담사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인 후 태백산을 따라 경상북도 영주에 도착했다.¹³⁾ 1908년 4월 각지의 의병부대가 경기도 양주로 집결했었고, 이때 경기도지역에서 일본군과 많은 전투가 일어났던 것으로 볼 때,¹⁴⁾ 이강년부대 전체는 경기도로 진군하지 못했지만, 편강렬은 선봉장으로서 양주로 먼저 이동했던 것이며, 이때 일어난 전투로 인해 부상을 입고 이강년부대의 본군인 태백산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여진다.

편강렬이 부상으로 인해 태백산에 남겨진 뒤, 이강년부대는 서울진공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했으나 일본군과의 몇 번의 전투 끝에 전력이 크게 소모되었고, 결국 1908년 7월 2일 전라도 赤城山 전투에서 이강년이 체포되면서 해체되었다.

13) 홍영기, 『한말 후기의병』,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pp.104~106.

14) 愼鏞廈, 「全國 十三道倡義大陣所의 聯合義兵運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1987, p.33.

이강년부대가 참여하려 했던 13도 창의군 또한 일본군의 공격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서울진공작전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이 작전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¹⁵⁾

이와 같은 편강렬의 의병 활동을 통해 볼 때, 16살의 어린 나이에 의병에 지원하여 일찍부터 국권회복운동에 가담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게다가 이강년의 『창의록』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수많은 의병들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新民會 활동과 105인 사건 연루

경기도 양주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편강렬은 의병에 다시 합류하지 못하고 고향인 황해도로 돌아왔다. 1908년 집으로 돌아온 이후 그는 1910년 신민회 활동으로 다시 독립운동을 재개했다. 신민회 활동을 하던 중 편강렬은 105인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105인 사건 공판 시말서에서 의병 활동 이후 그의 행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시말서에 의하면 그는 ‘종래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어릴 때는 집에서 한문을 배웠고(17세까지), 18세 때에 평양의 숭실학교에 입학하여 1년을 다녔다’고 답했다.¹⁶⁾ 즉, 편강렬은 1909년부터 장로교 계열인 평양 숭실중학교를 다니면서 근대 학문을 수학하고 기독교에 입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전통 한학을 공부하고 의병에 가담했던 그가 어떤 계기로 기독교 학교인 숭실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덧붙여 그는 시말서에서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 감리회라고 말했는데, 그는 언제 감리교를 받아들인 것이며 어떻게 장로교인 숭실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아마 그가 태어나고 자란 황해도 연백군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황해도는 유인석의 영향으로 의병운동이 활발했던 한편, 기독교의 영향도 강한 곳이었다. 특히 미감리회는 황해도지역을 서지방회와 북지방회

15) 홍영기, 『한말 후기의병』, pp.52~53.

16) 「第13回 公判始末書」,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1: 105人事件公判始末書 1, 1986, p.179.

가 관할하게 했는데, 서지방회는 1901년부터 연안과 해주를 중심으로 선교를 시작했다. 연안구역은 연안, 백천, 평산, 해주 등이 관할권이었으며, 그 중에서는 연안읍교회가 가장 유명했다고 한다. 이 교회는 농촌지역 감리교회 가운데 가장 성과 있는 곳이었으며,¹⁷⁾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인 金基範이 목사로 있었고, 1900년부터 1909년까지 8명의 전도사와 권사가 있었다.¹⁸⁾ 그러므로 편강렬은 어릴 때부터 감리교 계열의 기독교적 풍토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1908년 이후로 생각된다. 편강렬은 의병에 참여할 때까지 전통적 한학을 수학했고 1907년에는 의병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의병에서 돌아온 다음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편강렬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가 부상으로 이강년부대에서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진공작전과 13도 창의군은 실패하게 되었고, 의병들도 모두 흩어지게 되었다. 반면 당시 서북지방에서는 애국계몽운동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대표적으로 1907년 서울에서 安昌浩의 주도로 조직된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가 평안도와 황해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더욱이 1907년 편강렬의 첫째 형 수열과 둘째 형 부열이 황성신문사에 국채보상의연금을 내는 등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인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¹⁹⁾ 이에 편강렬은 의병 활동으로는 국권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새로운 독립운동 방략으로 계몽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송실학교에 입학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송실학교에 다수의 신민회원들이 있었고, 105인 사건에도 많은 송실 출신 인물들이 연루되었던 것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²⁰⁾

감리교도였던 편강렬이 장로교 계열인 송실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1905년부터 송실학교에서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학생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²¹⁾ 하지만 송실학교는 학생선발제도가 까다로워 근대적인 초등교육을 받았거나 또는

17)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M.E.C.* 1902년 통계표(서지방회-연안구역), 신광철, 『황해도지역 교회의 역사』, 『한국기독교와역사』 3, 1994, p.62 재인용.

18) 유동식,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1(1884~1992)』,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1994, p.236.

19) 『황성신문』 1907년 5월 25일자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20) 윤경로, 『(개정증보판)105인 事件과 新民會研究』, 한성대학교 출판부, 2012, p.78.

21) 송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송실대학교 100년사』 1, 1997, pp.74~75.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어야 했다. 이는 송실학교 출신의 金斗和가 중학교과정에 정식으로 입학하지 못하고 1년 더 공부한 뒤 입학했던 점에서 볼 때, 송실학교 입학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송실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선교사와 교회지도자들의 추천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²²⁾ 편강렬 역시 근대적인 초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송실 입학에 위해 1년 간 준비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연안읍 교회의 목사와 전도사들의 추천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 끝에 편강렬은 1909년 송실중학교에 입학했다.²³⁾ 송실중학교는 학생들의 학력 차이에 따라 4년 혹은 5년 과정이 있었으며, 교과목은 성경·수학·응용화학·자연과학·역사와 전기·어학·한문·예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송실학교에는 한국인 교사도 있었지만 주로 외국인 선교사들이 수업을 맡았고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서양의 근대 문물을 소개하기도 했다.²⁴⁾ 이러한 송실의 교과과정은 편강렬의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전통적인 한학을 공부했고 의병 활동을 했던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와 서양학문 수업은 신학문의 수용과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편강렬은 송실중학교에서 신학문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독립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실학교는 신민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특히 1909년부터 송실중학교에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同濟會라는 친목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이 단체는 金相隱과 邊麟瑞가 회장을 맡았으며, 학생들 간에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자금을 마련해 주는 활동을 했다.²⁵⁾ 그러나 동제회는 단순한 교내 친목단체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 단체를 조직한 김상은과 변인서 모두 신민회원이었고, 변인서는 동제회가 신민회의 이명단체였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²⁶⁾ 또한 105인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송실전문학교 출신이 7명, 송실중학교 출신이 편강렬을 포함해 6명이 있었고, 교사 3명도 실형을 받았으며,²⁷⁾ 송실의 초대 교장

22) 『송실대학교 100년사』 1, p.76.

23) 「第13回 公判始末書」,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 105人事件公判始末書 1, p.179.

24) 『송실대학교 100년사』 1, pp.92~93.

25) 「第15回 公判始末書」,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 105人事件公判始末書 1, pp.213~214.

26) 「邊麟瑞 신문 조서(제1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 105人事件訊問調書 2, 1987, p.182.

이었던 베어드(W.M.Baird)를 포함한 9명의 선교사들도 연루될 정도로 송실학교와 신민회는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²⁸⁾ 즉, 편강렬은 송실중학교에 다니면서 다수의 신민회원들을 만났던 것이다.

편강렬은 1910년 11월 李昇薰의 권유로 신민회에 가입했다.²⁹⁾ 편강렬을 신민회에 가입시킨 이승훈은 서북지방의 대표적인 상인이자 기업가였으며, 활동범위가 넓어 지명도도 상당히 높았다. 따라서 이승훈이 가입시킨 회원 수가 수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회자의 직업 또한 다양했고 지역적으로도 광범위했다. 이후 편강렬은 金九가 이끄는 황해도지부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105인 사건에 연루되었다.³⁰⁾

105인 사건은 일제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1911~1912년 서북지방의 기독교 세력과 반일민족세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만들어 낸 조작 사건으로, 테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사건으로도 불린다. 테라우치 총독이 서북지방을 시찰할 때 각 지방의 역에서 그를 암살하기 위한 계획이 그것이며, 이 사건으로 관련 인물 600여명이 검거·투옥되었고 그 중 105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제는 편강렬이 신민회에 가입하고 황해도 총관인 김구 등 동지들과 회합해 테라우치 총독의 암살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즉, 편강렬이 테라우치 총독이 1910년 12월 28일 선천을 순시한다는 정보를 접한 뒤 이승훈 등 여러 동지와 함께 선천 정거장에서 총독을 암살하려 했으나 실패했으며 다음 날 다시 암살하려 했다는 것이다.³¹⁾ 이러한 일제의 주장에 대해 몇몇 인물들 역시 편강렬의 가담을 시인함으로써 편강렬은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³²⁾

하지만 그것은 일제의 고문으로 인한 거짓 증언이었으며, 편강렬 또한 고문으로 인해 신문관의 뜻에 따라 시인한 것이었다. 그는 거짓 증언을 바로 잡기 위해 경

27) 윤경로, 『(개정증보판)105인 事件과 新民會研究』, pp.78~80.

28) 『송실대학교 100년사』 1, p.121.

29) 윤경로, 『(개정증보판)105인 事件과 新民會研究』, pp.205~207.

30)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편강렬을 황해도 출신의 안악사건에 연루된 자로 기록하고 있다(김구·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p.220).

31) 「第13回 公判始末書」,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 105人事件公判始末書 1, pp.179~183.

32) 「姜鳳羽 신문 조서」,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3: 105人事件訊問調書 1, 1987, pp.32~35; 「趙文伯 신문 조서」,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3: 105人事件訊問調書 1, pp.40~43.

성북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지금까지의 증언은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일제가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다음은 1912년 12월 10일 경성북심법원에서 이루어진 공판 내용이다.

총감부에서 김운천이 측량사무소를 설립한 일, 그 사람과 함께 총독을 암살하러 나갔던 일, 신민회에 가입했던 일 등에 대하여 물었으나, 그런 일이 없었으므로 모르는 사실이라고 대답했더니, 담당자가 심한 고문을 했다. 그때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도를 한 것이 아니냐며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기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더니, 또다시 때리고 구둑발로 차면서 자백을 강요했다. 그리고 고등심문소로 돌려졌을 때는 담당자가 윤치호, 양기탁 등과 함께 암살 계획을 세웠던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면서 윤과 양에 비하면 너희들은 아무 것도 아니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으박질렀다. 그러나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가 또 악형을 당하여 정신이 흐릿해져 가만히 있었더니, 유치장에 가 잠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대답하라고 하여 유치장에 가 있었더니 잠시 후 또 끌어내서 심하게 위협하고 또 때려 넘어뜨렸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묻는 대로 「예, 예」하고 대답했을 뿐, 본인이 자진하여 없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 원래 없는 사실이므로 신문관이 가르쳐주는 대로 말했고, 또 신문 사항과 비슷한 것은 말했다.³³⁾

위의 내용에 의하면 일제는 편강렬에게 신민회 가입과 활동, 사내총독 암살 계획과 관련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도록 고문을 가했는데, 이에 대해 편강렬은 본인이 직접 자백한 적은 없고, 고문으로 인해 하는 수 없이 “예, 예”라고 했을 뿐이라며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검사정에서도 본인이 자진해서 말한 일은 없다. 검사가 사실이 이러저러 했느냐고 물기에 다만 「예, 예」하고 대답했을 뿐이다. 증거가 있으므로 말하겠다. 11월 15일 경에 (본인이) 평양에 있었고 집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 집에서 황도창이란 사람을 시켜 내게 집을 부쳤는데, 그때 그 사람이 노새에서 떨어져 팔을 부러뜨린 일이 있었다. 그 사람을 조사해 보면, 피고가 그 무렵 평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1월

33) 「第13回 公判始末書」,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 105人事件公判始末書 1, pp.179~183.

23일에 선천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선천의 여성학교 교사 최중호, 이학규가 알고 있다. 본인이 당시 평양을 떠나서 선천에 가 있었다는 것을 조사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11월 25일에는 선천을 출발하여 해주 화양방면 신촌에 있는 신권균의 집에서 자고, 26일에 집으로 돌아온 것은 우리 마을의 이장 황석윤이 알고 있다. 또 진남포에서 급행열차로 선천에 갔다는 것은, 수십 명이 기차표를 사 가지고 출발했는지 아닌지를 그 역에 조회하여 그 출발 당일 승차객의 기차표 수를 조사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³⁴⁾

또한 위의 내용처럼 편강렬은 자신이 105인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이 당시에 한 일을 낱자별로 설명하고 이를 증명할 증인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³⁵⁾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1911년 10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그로부터 3년 후 무죄로 방면될 때까지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출감한 지 약 10년 뒤인 1925년, 의성단 활동으로 인해 또다시 법정에서 선 편강렬은 105인 사건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본래 내 가슴 속에 독립렬이 생기기는 내가 열아홉살 먹었을 때 사내(寺內)총독 암살 계획사건으로 삼십인 중에 참가하여 삼십륙회나 되는 악형을 받고 나온 후로부터 반항렬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각지로 도라다니며 동지를 얻으랴고 로력하얏스며 그 후 독립신문 한 장으로 일년 이개월이나 되는 징역을 받게됨에 점 점 반항심이 심하여져서 출감되든 날 바로 만주로 들어가 동지를 모아가지고 의성단을 조직한 것이라...³⁶⁾

위의 기사에 의하면 편강렬은 105인 사건을 계기로 ‘독립렬’과 ‘반항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편강렬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그의 독립운동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다. 105인 사건을 겪으면서 그는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의 조작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문과 징역살이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의병 활동의 실패에 연이어 신민회 활

34) 「第13回 公判始末書」,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 105人事件公判始末書 1, pp.179~183.

35) 「第24回 公判始末書」,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 105人事件公判始末書 1, p.337.

36) 『동아일보』 1925년 10월 24일자 「義成團長公判 團長片康烈의 陳述內容一部」.

동도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실행을 받은 105인 중 많은 인물들이 이 사건 이후로 독립운동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편강렬은 오히려 독립열을 느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나아가 각지로 돌아다니며 동지를 얻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볼 때, 새로운 방법의 독립운동을 강구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후 경상도와 황해도에서의 활동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105인 사건은 편강렬 개인에게는 일제에 대한 분노와 새로운 방략의 독립운동을 추진하게끔 한 사건이었다.

3. 慶尙道와 黃海道에서의 독립운동

1914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출감한 편강렬은 고향인 황해도로 돌아왔다. 그는 황해도에서 아버지 편상훈이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양진의숙에서 교편을 잡았다.³⁷⁾ 그러나 교사생활도 잠시 편강렬은 경상북도 김천으로 이동했다. 그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출옥한 이후 요시찰인으로서 당국의 엄밀한 주의와 감시를 받고 있었으므로 황해도에서의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다.³⁸⁾ 이로 인해 그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 살펴 본대로 각지로 돌아다니며 동지를 얻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게 있어서 김천은 그의 선대 고향일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도 김천의 진목을 중심으로 편씨 집성촌이 있었으므로 다른 지역에 비해 활동하기가 유리했다. 결국 편강렬은 1914년 편씨 문중의 도움을 받아 선고향 진목으로 이주해 서당을 개설해 운영하고, 直指寺 三聖庵에서 청년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기도 했다.³⁹⁾ 그러나 이미 신학문을 수용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가 서당을 운영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마

37) 『浙江片氏家乘譜』下, p.91; 『시대일보』 1924년 10월 23일자 「이상전에서 득승하고 실력전을 준 비중 잡혔던 의성단장 편강렬 제일공판정에서 공술」; 『동아일보』 1924년 10월 24일자 「義成團長公判 團長片康烈의 陳述內容一部」; 『조선일보』 1925년 1월 17일자 「의성단장 片康烈 公소공판개정」; 1925년 1월 17일자 『시대일보』와 『조선일보』에서는 편강렬이 교편일 잡았던 학교를 경성의 양정의숙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38) 「편강렬 판결문」, 고등법원, 1925년 3월 30일, 『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군전투사자료집, 1976, p.795.

39) 『金泉市史』下, 1999, pp.2246~2247; 송기동, 『김천의 마을과 전설』, 김천문화원, 2010, p.599.

도 서당 운영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여지며, 청년들에게 무술을 가르친 것은 이후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생각된다.

편강렬은 경상도에 머물면서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던 여러 무장투쟁단체를 접하게 되었다. 당시 경상도에는 豊基光復團, 達成親睦會, 民團組合, 朝鮮國權恢復團 등 많은 단체가 활동 중이었는데, 이들 단체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 모여 1915년 7월 대구에서 朴尙鎭에 의해 大韓光復會가 조직되었다.⁴⁰⁾ 편강렬은 1915년 대한광복회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진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 단체에서 선전반과 결사대를 조직해 활동했다고 한다.⁴¹⁾ 대한광복회는 부호의 의연 및 일본인이 불법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여 독립전사를 양성, 무력이 준비되는 대로 일본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을 달성하는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⁴²⁾ 그러나 편강렬이 대한광복회에 가담했다는 기록과는 달리 대한광복회의 임원·회원 명단에는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그가 이 단체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편강렬이 활동하고 있던 경상북도 김천은 대한광복회가 조직된 대구와 인접해 있었고, 더욱이 대한광복회의 조직원은 의병 활동과 신민회 활동을 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그와 함께 이강년 의병부대에 참여했던 姜秉洙, 趙鏞弼, 鄭鎭華, 尹昌夏,⁴³⁾ 그리고 편강렬이 활동했던 신민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양기탁, 박상진, 李觀求, 金佐鎭 등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⁴⁴⁾ 따라서 편강렬은 김천에서 앞으로의 독립운동을 준비했으며, 그 결과 대한광복회에서 여러 지인들과 함께 무장투쟁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그러나 1917년 박상진을 비롯한 대한광복회의 주요 인물들이 체포되고 1918년 조직망이 드러나게 되면서 대한광복회는 와해되었다. 이에 편강렬은 다시 황해도로 돌아와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1919년 2월부터 서울에서 3·1운동 계획 소식이 들리자 연백군, 그중에도 연안읍에서도 3·1운동이 계획·준비되었다.

40) 李成雨, 「光復會研究」, 충남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2007, pp.13~15.

4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독립운동사』 7: 의열투쟁사, 1983, p.339.

42) 趙東杰, 「大韓光復會研究」, 『韓國史研究』 43, 1983, p.114.

43) 권대웅, 「朴尙鎭의 생애와 독립운동」, 『동학연구』 28, 2010, p.67.

44) 이성우, 「光復會研究」, pp.26~29.

연안읍의 3·1운동은 2월 28일 100여 장의 독립선언서가 목사 孫昌鉉에게 전달되었고, 그 후 여러 교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시작되었다. 편강렬 또한 3·1운동의 계획 소식이 황해도지역까지 전해지자 이 지역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3·1운동을 준비했다. 그는 3·1운동 이전부터 동지들의 권유와 후원으로 시장에서 사기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생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사기점을 독립운동의 비밀연락처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장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게를 드나들었으며, 따라서 이 지역 독립지사들도 물건을 사러 가는 양 무난히 그곳을 드나들면서 독립운동을 계획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주도한 황해도 연백의 3·1운동은 3월 15일 봉북면에서 시작하여 3월 24일까지 1~3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만세시위가 계속됨에 따라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 대다수가 체포되었으나,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표면에 나서지 않았던 편강렬과 일부 지사들은 체포되지 않았다.⁴⁵⁾

3·1운동 실패로 다시금 좌절을 겪은 편강렬은 1920년 초 黃海道籌備團에 가입해 또 다른 독립운동에 가담했다.⁴⁶⁾ 軍事籌備團은 상해임시정부가 1920년을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1919년 말부터 군사부분을 강화하는 시책들을 추진했는데, 이 때 조직된 국내 비밀 군사조직이었다. 이 조직은 단원의 모집, 군수품 징발, 일본군에 대한 정보수집, 의열투쟁 등을 목적으로 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시정부의 공채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자금이 확보되면 군비를 갖추고 독립전쟁을 벌여 독립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⁴⁷⁾ 국내의 준비단은 서울과 황해도 두 지역에서 조직되었는데, 그 중 황해도준비단은 1920년 1월 상해임시정부에서 임무를 받고 황해도로 온 崔明植이 李承吉에게 준비단 규칙을 전해주면서 시작되었다.⁴⁸⁾ 이 단체는 황해도의 해주군, 안악군, 장연군, 은율군, 서흥군, 재령군에 지부를 두었는데, 편강렬은 안악군 대표를 맡아 주로 부호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했다.⁴⁹⁾

45) 『독립운동사』 2: 삼일운동사(상), 1971, pp.237~241.

46)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2; 獨立軍資金募集 1, 1997, p.337.

47)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2; 獨立軍資金募集 1, p.179.

48) 崔明植, 『安岳事件과 三·一運動과 나: 兢虛 崔明植先生 略傳과 自敘』, 兢虛傳記編纂委員會, 1970, p.81.

그렇다면 편강렬은 어떠한 경위로 주비단에서 활동하게 된 것일까? 황해도주비단의 경우 신민회와 황해도 연통부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신민회를 조직했던 안昌浩는 신민회 시절부터 국내에 통일된 단일 조직망을 구상하고 있었으며 이후 그 구상을 실현시킨 것이 임시정부 연통제였다. 더욱이 황해도 연통부원들은 과거 신민회에서 활동한 경우가 많았다.⁵⁰⁾ 예를 들어 상해에서 주비단 규칙을 가지고 온 최명식이나, 규칙을 받아 주비단을 조직한 이승길은 모두 신민회원들이었고,⁵¹⁾ 최명식으로부터 주비단 규칙을 받아 이승길에게 전해준 簡秉濟는 황해도 연통제의 책임자였다.⁵²⁾ 서울주비단의 경우에는 황해도주비단과 달리 대한광복회 출신들이 주를 이루었다. 1918년 대한광복회의 해체 당시 체포되지 않았던 회원들이 3·1운동 이후 상해임시정부로부터 주비단 규칙을 받아 주비단을 조직한 것이다.⁵³⁾ 결국 주비단은 신민회와 대한광복회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편강렬은 신민회와 대한광복회 모두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주비단에 자연스럽게 합류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덧붙여 편강렬의 동생 편덕렬이 1919년 11월 상해임시정부 국내실정조사원으로 임명되어 황해도 연백군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때,⁵⁴⁾ 그의 동생이 편강렬과 상해임시정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한다. 즉, 편강렬의 주비단 참여는 대한광복회 때부터 시작한 무장투쟁운동의 연장이었으며, 그와 상해임시정부와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이와 동시에 편강렬은 1920년 5월부터 동아일보사 해주지국 연안분국 분국장을 지내면서 언론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⁵⁵⁾ 그러나 분국장을 맡은 지 3개월 만인 1920년 8월에 체포되면서 더 이상 언론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⁵⁶⁾ 다음의 기사

49) 『독립운동사』 2: 삼일운동사(상), pp.337~338.

50) 李成雨, 「籌備團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5, 2003, p.320.

51) 최명식, 『安岳事件과 三·一運動과 나: 兢虛 崔明植先生 略傳과 自叙』, p.39.

52) 『독립운동사』 2: 삼일운동사(상), p.338.

53) 이성우, 「籌備團의 조직과 활동」, pp.325~327.

54) 『독립운동사자료집』 7: 임시정부사자료집, 1973, p.1201.

55) 『동아일보』 1920년 5월 24일자 「本社海州支局 延安分局長에 片康烈氏 任命」.

56) 『동아일보』 1920년 9월 1일자 「本社海州支局 延安分局長 片康烈氏 辭任하고 張東翰氏 新任, 長連分局長에 黃顯相氏」.

가 그 사실을 잘 보여준다.

지나간 팔월 칠일 새벽에 황해도 연백군 읍내(黃海道延白郡邑內) 진본사분국당 편강렬(片康烈)씨의 집에는 별안간 경관이 달려들어 전기 편씨를 테포하고 동씨의 형 편부렬(片富烈)씨도 테포하였스며 동시에 동군 봉북면 소성리(鳳北面韶成里) 신현기(申鉉琦)와 봉북면 광동리 김경태(鳳北面光東里 金景泰) 제씨도 테포되었고 또 동일 오후에 동군 호동면 라진포리(湖東面羅津浦里) 김각배(金玉培)씨도 테포되었스며 일변 경관 일대는 읍내 혐의자로 인정하는 집의 가택수색을 행하였스며 그 중에는 지금 분국당으로 잇는 장동한(張東翰)씨의 집에도 데일 첫재로 수색을 하였스나 아모 증거물도 발견치 못하고 편강렬씨의 집에서만 독립신문 몇 장이 발견되었슴으로 즉시 그 집에 사환으로 잇는 아해 두 명까지 경찰서로 다리고 가서 자서한 심문을 하였스나 아모 사실도 발견되지 안음으로 아해들은 그 날로 즉시 나왔스나 전기 오명은 심문을 마친 후 신현기(申鉉琦) 김경태(金景泰) 편부렬(片富烈) 삼씨는 즉시 방송되었고 편강렬(片康烈) 김각배(金玉培) 량씨는 팔월 십삼일에 해주지방법원으로 압송하였더라.⁵⁷⁾

위의 기사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1920년 8월 7일 편강렬은 연백군의 동아일보 분국장을 지내던 중 형 편부렬과 함께 체포되었으며, 자신의 집에서 『독립신문』 몇 장이 발견됨에 따라 해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었다. 해주지방법원 재판을 통해 알려진 편강렬의 체포 이유는 1920년 음력 4월 10일 상해임시정부에서 국내로 파견된 金聖奎로부터 『독립신문』 십 여 장을 받아 자택에 은닉하고, 군자금을 모을 것을 의탁 받았기 때문이었다.⁵⁸⁾ 결국 그는 1920년 9월 22일 해주지방법원에서 1년 2개월 판결을 받고 평양복심법원에 공소했으나 같은 판결을 받게 되었다.⁵⁹⁾

57) 『동아일보』 1920년 9월 14일자 「片金兩氏押送」.

58) 『동아일보』 1921년 7월 15일자 「大韓獨立海州支團을 組織한 鄭順敬等 豫審決定, 海州地方法院에서」; 『동아일보』 1921년 9월 25일자 「大韓獨立團 黃海道支團은 控訴, 鄭順敬等 열명 평양 복심에 공소」; 『매일신보』 1921년 10월 29일자 「黃海道支團事件」.

59) 『동아일보』 1921년 9월 25일자 「大韓獨立團 黃海道支團은 控訴, 鄭順敬等 열명 평양 복심에 공소」; 후술하겠지만 편강렬은 황해도에서 의성단을 조직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가 1920년 『독립신문』을 은닉한 죄로 해주형무소에 구금되면서 단체가 와해되었다고 한다. 당시 조직된 의성단의 정확한 조직 시기와 활동 내용은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중만주에서 조직한 의성단은 이때 조직되었던 의성단을 발전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不逞鮮人 金利賢 및 義成團組織에 關한 件

Ⅲ. 中滿洲에서의 의열투쟁

1. 義成團의 조직

황해도 해주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편강렬은 1922년 1월 20일 만기 출옥했으며 같은 해 11월 만주로 망명했다.⁶⁰⁾ 그가 만주로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924년 7월 편강렬이 체포된 직후 작성된 일제 측 기록이 주목된다. 이 기록에는 그가 해주형무소에서 출옥한 후 국민대표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상해로 이동했다고 적혀있다.⁶¹⁾ 편강렬이 상해임시정부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국민대표회의에 참가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볼 때 그가 출옥 후에도 상해임시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편강렬에 대해 기록한 1950, 1960년대 기록인 『抗日殉國義烈士傳』과 『獨立血史』에는 그가 해주형무소에서 출옥한 뒤 바로 경성으로 올라와 여러 동지들과 함께 일제의 군사시설을 알아내고 이를 파괴할 목적으로 만주에 있는 독립단체에 이 정보를 전하려 했으나 연락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직접 만주로 갔다고 서술되어 있다.⁶²⁾ 특히 편강렬이 경성에서 함께 한 동지들 중 金時漸, 金水長이 당시 상해임시정부 평안북도 연통부 소속이었다는 점이 확인되므로⁶³⁾ 연락을 하려 한 만주에 있는 독립단체는 상해임시정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편강렬의 황해도주비단 활동과 상해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 배포, 여러 연통부원들과의 친분을 통해 볼 때, 그는 상해임시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며, 그는 상해임시정부의 존재가 걸린 국민대표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으로 이동

(1923.12.2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部』(37)).

60) 『義成團長 片康烈의 逮捕에 관한 報告의 件(1924.7.2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部』(40).

61) 위와 같음.

62) 오재식, 『抗日殉國義烈士傳』, p.251과 朴永朗·金舜根·李斗範 共編, 『獨立血史』, 大韓文化情報社, 1949, p.93에서는 ‘…出獄即時 上京하여 朴泳孝, 盧心仙, 金時漸, 金水長 等 諸氏와 더불어 京城各地를 巡訪하면서 倭놈들의 軍事施設을 探知하여 이를 破壞할 計劃 밑에 在滿各地愛國團體와의 連絡이 必要함을 깨닫고 滿洲로 건너갔으나…’라고 편강렬의 망명 이유를 기록하고 있다.

63) 『독립운동사』 4: 임시정부사, p.278, p.286.

했을 것으로 보인다.

1923년 1월 3일부터 1923년 6월 7일까지 상해에서 개최된 국민대표회의는 국내를 비롯한 미주·상해·만주·노령 등의 135개 지역 및 단체 대표 125명이 참석해 상해임시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 그러나 회의 결과는 상해임시정부를 개조하여 계속 존속시키자는 개조파와 새로운 정부를 창조하자는 창조파의 대립으로 결렬되었다. 편강렬이 봉천, 북경을 거쳐 상해에 도착했을 때 회의는 이미 결렬되어 있었으며, 국민대표회의에 큰 기대를 걸었던 그는 매우 실망했다고 한다.⁶⁴⁾

결국 편강렬이 1923년 7월 山海關에서 양기탁, 金履大, 白南俊 등에게 상해임시정부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더 견실한 단체를 만들어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조직한 것이 바로 의성단이었다.⁶⁵⁾ 의성단은 장춘, 길림 등 대도시를 활동무대로 남만철도의 파괴, 조선총독 및 관동장관의 암살, 한국 내 관공서의 파괴, 국내 전도에 걸친 군자금의 모집을 목적으로 한 단체였다. 무엇보다 편강렬은 조직의 결속력과 독립을 위한 희생정신을 강조했다.⁶⁶⁾ 또한 만주지역에서 조직된 다른 무장투쟁단체들이 일본군에 눈치 띄지 않는 지역에서 독립전쟁을 목표로 군사훈련에 매진하는 것과는 달리 의성단은 도시지역에 자리를 잡고 파괴와 암살 등 의열투쟁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는 편강렬이 국내에서 의병 활동부터 계몽운동, 무장투쟁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독립운동을 시도해보았음에도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하자 마지막으로 일제의 식민통치기관을 폭파하거나 침략 행위에 앞장선 일본인과 친일 한인들을 처단하는 의열투쟁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편강렬이 만주로 망명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성단을 조직할 수 있었던 데에

64) 「편강렬 판결문」, 고등법원, 1925년 3월 30일, p.791.

65) 『시대일보』 1924년 10월 23일자 「이상전에서 득승하고 실력전을 준비중 잡현단 의성단장 편강렬 제일공판정 진술, 사내총독암살부터 세 번 입감하여 세 번 결심하고 크게 활동한 실경이야기」; 『동아일보』 1924년 10월 24일자 「義成團長 公判 團長片康烈의 陳述內容一部」. 의성단의 조직 시기에 대해서는 자료에 따라 1920년, 1923년 7월, 1923년 10월, 1923년 겨울 등으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1920년은 황해도에서 처음으로 조직했던 의성단을 뜻하는 것이며, 만주에서 재조직된 의성단은 편강렬이 1925년 체포 후 신문과정에서 의성단을 1923년 7월에 조직했다고 직접 말하고 있으므로 1923년 7월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여진다(「義成團長 片康烈의 逮捕에 關한 報告의 件(1924.7.2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40)).

66) 「義成團의 情況에 關한 件(1924.4.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38).

는 고문인 양기탁의 도움이 있었다. 양기탁과 편강렬은 의성단 조직 이전부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두 사람의 관계는 105인 사건부터 시작되었다. 『백범일지』에 의하면 양기탁은 옥중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지도했다고 하며,⁶⁷⁾ 105인 사건 이후 편강렬의 모든 활동은 양기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05인 사건 이후 편강렬이 가담한 대한광복회에서 양기탁은 대한광복회 포고문을 작성하고 광복회의 무장독립운동 방략을 지원했었다.⁶⁸⁾ 또한 1920년 4월 동아일보가 창간되면서 양기탁이 고문 겸 편집감독으로 활동했는데, 다음 달인 5월에 편강렬이 동아일보 해주지국 연안분국장을 맡았다.⁶⁹⁾ 더욱이 편강렬은 1924년 체포 후 신문과정에서 양기탁을 ‘양기탁선생’이라 칭하면서 존경을 표하고 있다.⁷⁰⁾ 즉, 편강렬은 105인 사건으로 양기탁을 만난 후 그의 독립운동 노선과 방법 등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뿐 아니라 만주에서 어떤 기반도 없던 편강렬이 의성단을 조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일찍이 만주로 망명해 활동하고 있던 양기탁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양기탁과 함께 편강렬이 의성단을 조직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또 다른 세력은 의성단 초기 단원들이었다.

편강렬은 원래 황해도에서 의성단을 조직한 적이 있었고, 당시 활동하던 단원은 20명이었으나, 단장인 편강렬이 해주에서 체포되어 8개월간 징역처분을 받자 단원들은 모두 헤어지기에 이르렀다. 이후 편강렬은 중국에 있는 단원들에게 2회에 걸쳐 ‘단체를 부활하고자 하니 가입하라’고 연락했으며, 기존 단원들은 편강렬과 회합해 정식 단원을 모으고 방침과 기지를 수합했다.⁷¹⁾

위의 내용은 의성단원 金利賢의 진술 내용으로, 그 내용을 보면 편강렬은 이미

67) 김구·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pp.221~222.

68) 金必子, 『梁起鐸의 民族運動』, 地球文化社, 1988, p.66.

69) 『동아일보』 1920년 5월 24일자 「本社海州支局 延安分局長에 片康烈氏 任命」.

70) 「義成團長 片康烈의 逮捕에 關한 報告의 件(1924.7.2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40).

71) 「不逞鮮人 金利賢 및 義成團組織에 關한 件(1923.12.2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37).

황해도에서 의성단을 조직한 적이 있었고, 당시 활동하던 단원은 20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장인 편강렬이 1920년 『독립신문』을 은닉한 죄로 해주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자 단원들은 모두 헤어졌던 것이다.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 편강렬은 중만주에서 새롭게 의성단을 조직할 결심을 하고, 중국에 망명해있던 기존 단원들에게 단체의 부활을 알리고 가입을 권유했다. 기존의 의성단원들은 편강렬보다 먼저 중국에 망명해있었기 때문에 그가 만주지역에서 의성단을 재조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즉, 의성단의 초기 조직은 단장인 편강렬과 고문인 양기탁 그리고 황해도에서 함께 활동했던 의성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과 함께 중만주 의성단 활동을 계획했다고 볼 수 있다.

의성단은 단장-고문-단원의 체제로 조직되었는데, 1923년 12월 의성단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⁷²⁾

직위	이름	나이	출신지역	비고
단장	片康烈	31세	黃海道 延白	
고문	梁起鐸	53세	平安南道 平壤	元 統義府 幹事
단원	郭道盛	25세	平安北道 義州	
단원	黃允浩	41세	黃海道	
단원	朴英大	24세	平安北道 宣川	
단원	白奎亨	22세	平安北道 朔州	
단원	金德昌	28세	平安北道	元 義成團員
단원	金善學	24세	平安北道 朔州	
단원	金淵泰	30세	平安北道 朔州	元 義成團員
단원	金義燮	23세	慶尙道	

구성원은 단장인 편강렬을 포함하여 10명이었고, 양기탁이 고문을 맡아 이들을 지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대는 20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황윤호가 41세로 가장 고령이었다. 원래 황해도에서 편강렬과 함께 의성단 활동을 한 인물로는 김창덕, 김연태 등이 있었다. 대체로 평안북도 인물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평안북도 삭주 출신이 3명인 점 또한 눈이 띄는데, 백규형, 김선학, 김연태 등이 그러하다. 대부분의 단원들은 의성단 활동 이전의 다른 활동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72) 「不逞鮮人 金利賢 및 義成團組織에 關한 件(1923.12.2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37).

다만 황윤호만이 1921년 평안북도 적십자 청년단 의용단에서 활동했다.⁷³⁾

의성단의 본부는 결성 초기 산해관에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편강렬은 의성단의 본부를 吉長線 부근 중 이주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卡倫⁷⁴⁾으로 옮겼다. 그는 카룬을 직접 답사한 뒤 본부로 삼을 것을 결정했는데, 카룬을 본부로 정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서북간도와 길림, 그리고 북만주지역에는 여러 독립운동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나, 이 지역에는 어떠한 독립운동단체도 활동하고 있지 않았다. 근접한 지역에 다른 독립단체가 있을 경우 단체 간에 세력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일제 관헌들에게도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독립단체가 없는 지역에 자리를 잡는 것이 유리했다. 둘째, 길장선(길림-장춘), 東支線(장춘-하얼빈), 南滿洲線(장춘-봉천) 등 세 개의 철도노선이 지나는 중심지로 교통 및 여러 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다. 의성단의 주요 활동이 장춘, 길림, 하얼빈 등 대도시에서 잠입해 친일한인들에게 군자금 모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 것이 활동에 용이했다. 셋째, 편강렬은 카룬과 인근지역을 직접 조사하면서 이 지역이 매우 농사가 잘 되는 반면, 이곳에서 일하는 조선인들이 중국인 지주들의 횡포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편강렬은 단장인 자신의 이름을 걸고 조선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카룬으로 의성단 본부를 옮겼던 것이다.⁷⁵⁾

2. 의성단의 활동

1923년 7월 의성단을 재조직한 편강렬은 카룬에 본부를 두고, 장춘, 길림, 하얼빈을 주무대로 활동을 시작했다. 의성단의 활동은 주로 친일파를 상대로 군자금을 모금하는 것이었고, 점차 세력을 늘려 주변 지역에 지단을 설치하고, 동시에 국내

73) 「大韓赤十字社와 義勇團員 檢舉(1921.5.10.)」,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3.

74) 卡倫은 한글 그대로 읽으면 ‘잡룬’이고, 중국어로 읽으면 ‘카룬’(Kalun)이다. 그러나 역사 용어로 카룬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이하 카룬으로 한다.

75) 「不逞鮮人 義成團長의 脅迫狀에 關한 件(1924.1.8.)」,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37); 「義成團長 片康烈 陳述書 送付의 件(1924.8.1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39).

잠입도 시도했다. 또한 중만주지역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한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만주지역의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요컨대 편강렬의 의성단 활동은 중만주에서의 군자금 모금과 친일파 처단 활동, 국내에서의 군자금 모금 시도, 한인들을 위한 노력,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의 통일운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당시 만주의 대도시였던 길림·장춘·하얼빈에는 일제의 수많은 침략기관이 건립되어 중국의 경제·문화·사회·군사 등 여러 면을 잠식해가고 있었고, 이 주위에 이들에게 협조하는 친일 한인들이 있었다. 의성단은 주로 이들에게 협박문을 보내어 군자금을 마련했다. 아래의 판결문 내용은 의성단의 군자금 모금 활동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 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인용하고자 한다.

1924년 음력 2월 12일경, 편강렬은 각각 권총을 휴대한 부하 박일훈(朴日勳) 외에 9명을 인솔하고 장춘 성내에 침입하여 동일로부터 동 월말까지의 사이에 동 성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하여 조국을 위하여 활동한 편강렬 등 단원에게 독립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위협을 입힌다는 취지의 협박문을 우송하고, 또는 단원으로 하여금 직접 교부하게 하여 공갈하고 두려운 나머지, 그대 조경근(趙敬根)으로 하여금 50원, 유규형(柳奎亨)으로 하여금 5백 원, 김동만(金東晩)으로 하여금 5백 원을, 동일경 동 성내에 거주하는 함선재(咸善哉)에 대하여 앞에 말한 부하로 하여금 독립운동자금의 제공을 말하게 하고 동인이 이에 불응하므로, 동인에 대하여 사형선고문(死刑宣告文)을 송부하여 공갈하고 두려운 나머지 동년 2월 중순, 3월 26일, 3월 말일의 3회에 걸쳐 1회에 각각 3백 원씩 합계 9백 원을, 앞과 같은 날 동 성내의 홍일린(洪一麟)에 대하여 ‘조국을 위하여 활동하는 우리에게 돈을 제공하라 불응하면 동족간에 의리를 잃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협박문을 우송하여 공갈함으로써 두려운 나머지 현금 6백 원을 모두 동 성내 북문 밖 육마로(六馬路) 차승객잔(車昇客棧) 또는 서마로(西馬路) 김수영(金守榮) 집으로 지참하게 하여 피고 또는 그 부하에게 교부하게 하고, 또 앞과 같은 날에 동 성내 황성종(黃晟鍾)을 동부 북문 밖의 모 중국인 음식점으로 동반하고 동인에게 권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독립운동자금의 제공을 강요하여, 동년 3월 25일에 3백 원, 4월 3일에 3백 원, 동월 4일에 9백 원을 동 성내서 서마로의 김수영 집에 지참하게 한 다음 이를 강탈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⁷⁶⁾

위의 인용문과 여타 일제 측 자료를 바탕으로 의성단의 군자금 모금 방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편강렬은 친일파를 위주로 군자금을 모금했는데, 의성단 결성 초기에는 단원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본인과 단원 2~3명과 함께 장춘, 길림 등 대도시에 잠입했다. 군자금 모금의 대상은 친일파로 대표되는 인물인 長春鮮人民會長,⁷⁷⁾ 吉林朝鮮人民會長과 副會長,⁷⁸⁾ 또는 친일부호나 일본영사관의 조선인 순사 등이었으며, 편강렬은 그들에게 납치를 시도하거나 살해협박장을 보냈다. 협박장의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판결문에 의하면 ‘조국을 위하여 활동하는 우리에게 돈을 제공하라, 불응하면 동족 간에 의리를 잃을 것이다’라고 적었다고 한다.⁷⁹⁾ 편강렬은 그들에게 적게는 몇 백 원부터 크게는 몇 천원까지 군자금을 요구했다. 또한 장춘선인민회장 金東晩이 편강렬의 협박으로 인해 회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볼 때,⁸⁰⁾ 군자금 요구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친일 활동을 그만둘 것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1924년 초부터 편강렬은 길림, 장춘뿐만 아니라 하얼빈으로 세력을 넓혔다. 먼저 선발대를 파견해 일본 관헌의 독립운동가 체포 상황과 조선인의 상황을 조사하게 한 뒤, 편강렬 본인이 직접 부하 몇 명을 인솔해서 하얼빈으로 가서 군자금 모집하고 무기를 구입했다.⁸¹⁾ 그리고 같은 해 7월 초 부하 4명을 하얼빈에 잠입시켜 의성단 이름으로 통고문을 널리 배포하고 1천원에서 3만원까지 요구하기도 했다.⁸²⁾ 이후 의성단의 조직이 커지면서 인원을 늘려 단원 8~10명이 잠입해 군자금을 모금했고,⁸³⁾ 친일 부호의 집을 습격하거나⁸⁴⁾ 장춘 내의 남만주철도주식회

76) 「편강렬 판결문」, 고등법원, 1925년 3월 30일, p.792.

77) 「不逞鮮人 義成團長の 脅迫狀에 關한 件(1924.1.18)」, 「不逞鮮人 義成團에 關한 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37); 「義成團의 情況에 關한 件(1924.4.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38).

78) 「義成團長 片康烈 等の 行動-臨時報 제48호(1924.2.4)」, 「義成團의 情況에 關한 件(1924.4.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38).

79) 「편강렬 판결문」, 고등법원, 1925년 3월 30일, p.792.

80) 「義成團의 情況에 關한 件(1924.4.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38).

81) 「義成團의 動靜에 關하여(1924.2.1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38).

82) 「義成團長 片康烈의 逮捕에 關한 報告의 件(1924.7.2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40); 『조선일보』 1924년 11월 5일자 「義成團長 片康烈의 二回公判. 삼일 신의주 디방법원에서, 피고는 각처에 군자청 구했던 사실을 거침없이 진술.

사병원을 습격하는 등 대담한 활동을 보였다.⁸⁵⁾ 이러한 활동을 하던 중 일본인 순사와 격전을 벌이는 일도 자주 일어났는데,⁸⁶⁾ 장춘에서 일본 순사들과 7시간동안 시가전을 벌인 적도 있다고 전해진다.⁸⁷⁾

이러한 편강렬과 의성단의 활약에 대해 일제는 의성단을 馬賊으로 분류하고, 특별경계반을 조직하여 엄중히 경계하고 해체시키려 했다.⁸⁸⁾ 특히 장춘의 일본영사관에서는 「의성단 일파에 대한 특별경계의 건」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의성단의 활동을 예의 주시했다.⁸⁹⁾ 의성단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단원의 수가 늘어나자 지방조직과 연락기관도 생겨났다. 의성단의 확장에 대해 『시대일보』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북만주 어느 곳에 근거를 둔 의성단은 지난 겨울 ○○지방에서 창립한 이래로 활동이 비상하여 지금에는 만흔 동지와 만흔 금전이 모였는데 그 단장 편강렬은 더욱 더욱 단결을 확장키 위하여 중동선 연안과 함장선 연안에 단원을 파송하여 각 지방 중요한 곳에 지단을 설치하였다는데 지방 인사들은 매우 환영한다.⁹⁰⁾

위의 기사를 통해 의성단이 조직된 이래로 활동이 활발하여 단원과 자금이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본부가 위치해 있는 카룬 주변 지역에

83) 「義成團의 情況에 關한 件(1924.4.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38); 「편강렬 판결문」, 고등법원, 1925년 3월 30일, pp.791~798; 『동아일보』 1925년 1월 17일자 「義成團長片康烈控訴公判十五日平壤覆審에서」.

84) 「편강렬 판결문」, 고등법원, 1925년 3월 30일, p.792; 『동아일보』 1925년 1월 17일자 「義成團長片康烈控訴公判十五日平壤覆審에서」.

85) 박영량·김순근·구기운 공편, 『獨立血史』, p.93;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 大韓民國公報處, 1985, p.118; 오재식, 『抗日殉國義烈士傳』, p.251.

86) 「不逞鮮人 金命濟 射殺에 關한 件(1923.12.25)」, 「不逞鮮人 金利賢 및 義成團組織에 關한 件(1923.12.2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37).

87) 박영량·김순근·구기운 공편, 『獨立血史』, p.93; 채근식, 『武裝獨立運動秘史』, p.118; 오재식, 『抗日殉國義烈士傳』, p.251; 『독립운동사』7, p.340.

88) JACAR (아시아역사자료센터) Ref.A03023726000、滿洲及東部內蒙古ニ於ケル馬賊 馬賊ト不逞鮮人、 『各種情報資料·參情報』(國立公文書館); 「義成團의 情況에 關한 件(1924.4.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38).

89) 「義成團 一派에 대한 特別警戒의 件(1924.4.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38).

90) 『시대일보』 1924년 5월 19일자 「의성단의 대활동 각지에 지단을 설치하고서」.

단원을 파송하여 지단을 설치했고, 지단 설치에 대해 해당 지역 사람들이 매우 환영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기사와 더불어 같은 시기 『독립신문』에서도 편강렬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의성단의 확대와 지단 설치를 알리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⁹¹⁾

실제로 편강렬은 본부인 카룬 인근 지역에 지방조직을 구성했는데, 해당 지역은 樺甸縣, 盤石縣, 額穆縣, 길림성 등이었으며, 카룬에 30명, 화전면에 29명, 반석현에 14명, 액목현에 5명, 길림성에 6명의 단원을 배치했다.⁹²⁾ 이를 통해 볼 때, 1924년 2월 당시 의성단원의 수는 약 80여명으로, 결성 초기 단원 10명으로 시작한 것이 비해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보여진다. 편강렬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길림성 내에서 더 많은 단원 모집을 하기 위해 단원들을 파견하고, 하얼빈에서도 단원을 모집하려 했다.⁹³⁾ 또한 의성단의 연락기관을 카룬, 반석현, 伊通縣 孤榆樹, 懷德縣 五家子, 陶賴昭, 九江浦 등의 지역에 설치하고, 각 지역에 담당자를 두었다. 이와 같이 의성단의 세력 범위는 점차 확장되어 그 범위가 반석현 일부와 이통현의 대부분, 길장선 일대와 동지선, 구강포지방 등에 이르게 되었고, 단원 250여명과 총기 205정을 보유한 단체로 발전했다.⁹⁴⁾ 이렇게 의성단의 세력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의성단의 친일과 처단 활동과 한인을 위한 생활 개선 노력에 대해 이 지역 한인들이 지지했기 때문이며, 또한 이 지역에 다른 독립운동단체가 활동하고 있지 않아 단원을 모집하는 데 세력다툼 등과 같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편강렬은 의성단의 세력이 점차 커지자 국내 잠입 계획을 실행시켰다.⁹⁵⁾ 국내 관공서의 파괴와 군자금 모집은 의성단의 초기 목적 중 하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잠입을 여러 번 시도했던 것이다. 특히 長沙洞의거는 의성단의 국내 잠입에 대표적인 사건이다. 1924년 5월 편강렬은 의성단원 金洪鎭과 金昌鎭을 국

91) 『독립신문』 1924년 5월 31일자 「片氏의 活動」.

92) 「義成團長 片康烈 等の 行動(1924.2.4.)」,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38).

93) 「不逞鮮人 義成團의 動靜에 대하여(1924.2.1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38).

94) 「義成團長 片康烈의 逮捕에 관한 報告의 件(1924.7.2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40).

95) 위와 같음.

내로 잠입시켜 군자금을 모집할 것을 명령했다. 그들은 편강렬의 명령에 따라 김홍진의 고향인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에 잠입해 있었는데, 6월 9일 성묘를 위해 이동하던 중 장사동 소재 영덕경찰서 장사경찰관 주재소를 지나다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다. 김창진과 김홍진은 순사들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고, 순사 4명 중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러나 결국 이 둘은 추격전 끝에 사망하고 말았다.⁹⁶⁾

일제는 의성단의 만주 내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그들을 예의주시하던 찰나에 장사동사건이 일어나면서 의성단의 국내 잠입에 대해 더욱 경계를 강화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강렬은 더 과감하게 국내에서 폭탄사건을 벌이기 위해 준비했다. 『조선일보』 1924년 7월 5일자 「義成團員이 爆彈을 가지고 경성에 들어왔다고」에서는

요사이 종로경찰서 고등계에서는 무엇인지 사건은 잇는 듯하다 절대 비밀에 부쳐가지고 이 구역 저 구역에서 수군군々하다가는 시침이를 때이고 잇는 중인데 모처에서 들은 바에 의지하면 간도에 본부를 둔 의성단원(義成團員)이 폭발탄 삼십 개를 가지고 경성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잇서 전번에 편덕렬(片德烈)을 테포하얏든것도 이에 대한 혐의라 하며 근일에는 락원동(樂園洞)에 사는 의생 김모(金某)와 통신 연락이 잇다는 혐의로 매우 주목 중이라더라.

라고 전하고 있다. 이 내용에 의하면 편강렬이 동생 편덕렬, 의생 김모와 협의하여 의성단원이 폭탄 30개를 가지고 경성에 잠입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종로경찰서에서는 폭탄사건에 대비해 경계를 엄중히 하고, 편덕렬과 편강렬 관련 인물들을 모두 체포했던 것이다.⁹⁷⁾

다음으로 편강렬은 군자금 모집 외에도 한인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카룬과 그 주변 지역은 농토가 비옥해 이주한인들이 많았는데, 대부

96) 『동아일보』 1924년 6월 11일자 「獨立團 二名被殺, 경북 영덕군 남정면에서 日巡查 四名과 交戰하여」.

97) 『동아일보』 1924년 5월 25일자 「義成團員潛入說, 목하강원도에 두류한다고」; 『동아일보』 1924년 7월 5일자 「義成團員潛入說, 몇명이 폭탄을 가지고 조선에」; 『신한민보』 1924년 8월 7일자 「의성단원 잠입설 몇 명이 폭탄을 가지고 내지에」.

분이 중국인 지주 하에 소작농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편강렬은 직접 이 지역을 답사하면서 이곳의 한인들이 농사지를 자금과 농기구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인 지주들의 횡포까지 더해져 매우 열악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개선하거나 정착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 한마디로 매우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⁹⁸⁾

실제로 카룬지역은 농사가 매우 잘 되는 지역이었는데 한인의 실상은 매우 열악했다. 비록 1930년대의 기록이지만 『동아일보』 1932년 4월 20일자 「長春一帶의 耕地의 分布」에서는 카룬과 인근 지역인 회덕현 오가자가 장춘 관내에서 가장 개간지 면적이 넓은 뿐만 아니라 집단 농업에도 유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⁹⁹⁾ 그러나 이 지역의 100여 호에 달하는 한인 농민들은 모두 만주인 마을에 곁들여 살면서 독립생활을 할 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고국에서 생활의 근거를 잃고 이 지역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고, 다행히 농사에 성공하면 그 자리에서 겨울을 보내지만, 만약 이듬해 가뭄이 들어 농사를 실패하게 되면 다시 다른 지역을 찾아 이동했다는 기록도 있다.¹⁰⁰⁾

앞서 편강렬은 카룬이 다른 독립단체가 없고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본부로 삼은 것이라 말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 때문이었다. 편강렬은 이러한 이유로 카룬에 본부를 두고 한인들을 중국인 지주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주민 가운데서 의성단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주한인 중에는 조국의 광복을 꿈꾸는 애국자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매호 현금 1원 혹은 50전씩 거두어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기관의 설립, 유랑하는 동포의 규합, 자치기관과 경호기관의 설치, 실업교육의 장려 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¹⁰¹⁾

98) 「義成團長 片康烈 陳述書 送付의 件(1924.8.1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 (39).

99) 『동아일보』 1932년 4월 20일자 「長春一帶의 耕地의 分布」.

100) 孔鎭恒, 『理想郷을 찾아서』, 灌菴孔鎭恒稀壽紀念文集刊行委員會, 1970, p.21; 양정필, 「1930년대 중반 개성자본가의 만주 진출과 농업 투자; 孔鎭恒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29, 2013, p.202.

101) 「편강렬 판결문」, 고등법원, 1925년 3월 30일, pp.795~796; 『동아일보』 1924년 8월 30일자 「片康烈은 新義州에, 의성단장으로 활동하든 사람, 할빈에서 잡혀 신의주로 압송」.

마지막으로 편강렬은 의성단장으로서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의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의 통일은 그가 의성단을 세우기 이전부터 갈망하던 것이었다. 편강렬은 1923년 국민대표회의에서부터 통합을 논의했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동아일보 기사이다.

다년간 풍우를 무릅쓰고 해외에 류랑하여 조선독립을 운동하는 이들 중에는 각자 패가 갈리고 당이 나뉘 일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그 사업을 통일하라는 뜻으로 수 월 전부터 상해에서 국민대표회의(國民代表會議)를 열고 열어가기로 중요사항을 토의하는 중이라 함은 임의 본보에 루차 보도한 바이며 또 결의사항도 기회를 딸어 보도하여 왔거니와 그 회의에서는 근일에 일으려 중국동삼성과 로령 련해주(露領沿海州)에 있는 무력파들도 적극적으로 군사통일을 계획한다는데 그 중 각 과의 유력한 수령들은 김규식(金奎植) 지우강(池雨降) 김좌진(金佐鎭) 편강렬(片康烈) 제씨라더라.¹⁰²⁾

위의 내용을 보면 국민대표회의에서 중국 동삼성과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무력투쟁단체들의 군사 통일 논의가 이루어졌고, 편강렬은 당시 만주와 소련 국경 근처에서 활동하던 대한독립군단의 김규식, 지우강, 김좌진 등과 통일을 계획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그들이 논의했던 무력단체의 군사조직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편강렬은 의성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 다시 통합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편강렬은 1924년 1월 20일 의성단 외교부장 韓亨基 외 동 단원 20명, 西路軍政署 통신부장 金義仙 외 동 단원 5명, 옛 僑民團 대표 申益洙 외 2명, 吉林住民會長 李寬一 외 동회원 5명 등 여러 동지들과 독립운동 발전에 관하여 논의했다. 그리고 간부 명단을 정하였는데 그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의성단장 편강렬, 부장 林武, 고문 李東寧, 李範, 金嫻, 군무참모장 梁起鐸, 군참모 李章寧, 외무총관 崔振東, 외무부원 金佐鎭, 崔桂和, 총무장 朴觀海¹⁰³⁾

102) 『동아일보』 1923년 5월 25일자 「露中地方 獨立軍 統一의 新機運」.

103) 「不逞鮮人の 行動에 관한 件(1924.2.9.)」; 「義成團의 情況에 관한 件(1924.4.9.)」, 『不逞團關係 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38).

이 인물들이 실제로 의성단에서 활동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1924년 초 이들의 활동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부장 林武와 군무참모장 양기탁은 각각 의성단 부단장과 고문을 맡고 있었으며, 李東寧은 상해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李範(李範允), 崔振東, 김좌진은 대한독립군단에서, 金麟과 李章寧은 대한독립군정서에서 활동하고 있었다.¹⁰⁴⁾ 즉, 편강렬, 임무, 양기탁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당시 다른 독립운동단체에서 활발하고 활약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므로 이 명단은 실질적으로 운영된 간부 명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편강렬은 의성단을 중심으로 만주지역의 독립운동단체를 통합시킬 목적으로 위의 명단과 같은 조직을 계획한 것이 아닐까한다. 의성단장과 부장, 군무참모장은 본래 의성단 출신으로 하고, 그 외에는 이범윤, 김혁, 김좌진, 최진동, 박관해 등 북만주에서 활약하는 인물들로 구성함으로써 의성단을 주축으로 전만주의 독립운동단체의 통일을 계획한 것이다. 실제로 이 중에서 이장녕과 박관해는 1924년 3월 개최된 전만통일회의주비회에 참여하기도 했다.¹⁰⁵⁾ 아울러 편강렬은 남만주에 위치한 서로군정서, 赤旗團, 大韓統義府, 光正團, 光復團, 間島國民會, 農務會, 三義團 등과 북만주에 위치한 北路軍政署 등의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들을 하나의 독립운동단체로 통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¹⁰⁶⁾

이와 같은 편강렬의 통합운동은 의성단 고문이었던 양기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양기탁은 의성단의 고문을 맡기 이전에 1922년 8월 남만주지역에 위치한 8개의 단체를 통합해 대한통의부를 조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통의부는 독립운동 방략과 이념의 차이로 분열되기에 이르렀으며, 양기탁은 결국 통의부를 탈퇴하고 편강렬의 의성단 조직에 참여한 것이었다. 그러나 양기탁은 의성단 고문으로 활동하면서도 또다시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을 시도했다.¹⁰⁷⁾ 편강렬은 의성단 조직 이전부터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을 위해 노력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양기탁의 뜻을 지지했으며, 의성단 활동으로 모은 군자금 600원을 통합운동에 쓸

104) 『독립운동사』 5: 독립군전투사(상), pp.450~451.

105) 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 『국역 고등경찰요사』, 선인, 2010, p.221.

106) 『동아일보』 1925년 1월 17일자 「義成團長控訴公判=十五日平壤覆審에서開廷」.

107) 김필자, 『梁起鐸의 民族運動』, p.76.

수 있도록 제공했다.¹⁰⁸⁾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독립운동단체들과 연합 활동을 벌이고, 특히 북만주에 위치한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합운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다.

편강렬의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해 1924년 3월 전만주통일의회주비발기회 개최되었고, 이때 참석한 단체는 의성단, 군정서, 길림주민회, 광정단, 대한독립단, 대한통의부, 노동친목회 등이었다.¹⁰⁹⁾ 그러나 대한독립단이 빠지면서 남만주의 독립운동단체들만이 전만통일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결국 1924년 11월 24일 의성단을 포함한 8개의 단체가 正義府로 통합되었다.¹¹⁰⁾

1924년 7월 24일 편강렬은 하얼빈에서 체포되었다.¹¹¹⁾ 그가 체포된 것은 의성단에 잠입하여 밀정 활동을 하던 承禎濶의 밀고로 인한 것이었다.¹¹²⁾ 이후 편강렬은 8월 22일 신의주경찰서로, 9월 27일 신의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압송되었다.¹¹³⁾ 1924년 10월 20일 제1회 공판이 열렸는데, 편강렬의 변호는 李熙迪, 許憲, 崔鎭 등 국내 유명 변호사들이 무료 변호를 맡았다. 편강렬은 이들이 서로 변호를 맡으려고 할 만큼 국내외로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였으며, 그의 독립운동이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변호를 자처했다고 보여진다. 변호사

108) 『義成團長 片康烈 陳述書 送付의 件(1924.8.1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39).

109) 『국역 고등경찰요사』, p.221.

110) 정의부에 통합되지 않은 의성단원들은 국내에 잠입해 편강렬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중국 직예군에 가담하는 등으로 분열되었다(『동아일보』 1924년 10월 1일자 「北滿洲의 義成團員入京說, 시정 기념을 압해두고 무기를 가지고 드러와」; 『시대일보』 1924년 10월 1일자 「의성단원 침입 종로경찰서는 대활동을 개시」; 『조선일보』 1924년 10월 1일자 「義成團 餘黨이 京城에 潛入. 무기를 가지고 원수를 잡고자」; 『매일신보』 1924년 10월 1일자 「義成團員 潛入說, 鐘路署 대활동을 개시, 무기를 가지고 경성에 들어와 군자금 모집한 행적이 있다」; 『조선일보』 1924년 10월 2일자 「경찰부 非常活動 의성단 잠입설로 인함인가」; 『매일신보』 1924년 10월 12일자 「光正團과 義成團, 모두 직예군에 가담」; 『매일신보』 1924년 11월 30일자 「義成團이 대두, 20여명 결사대가 침입하는 중」; 『시대일보』 1924년 12월 24일자 「편단장의 부하들이, 의성단원이 안동현에 왔다고」; 『시대일보』 1925년 1월 17일자 「편강렬재심공판 동지가 들어왔다 경계엄중」).

111) 『義成團長 片康烈의 逮捕에 關한 報告의 件(1924.7.2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40).

112) 승정윤은 일제의 밀정으로 의성단원으로 들어가 의성단의 정보를 일제에게 넘기고, 일제와 계획 하에 편강렬을 하얼빈의 한 양복점으로 유인하여 체포케 했다. 그는 편강렬을 체포하게 한 공으로 일제로부터 상여금 만원을 받았다고 한다(『중외일보』 1927년 8월 5일자 「정주서에 잡힌 자칭 정의부원, 정의부원이란 거짓말이요, 돈에 욕심나서 강도질한 자, 편강렬 잡아주던 밀정」).

113) 『동아일보』 1924년 10월 4일자 「長春義成團長 片康烈 취조후 검사국에」.

들은 편강렬의 활동에 대해 의성단은 만주지역 한인을 위해 조직된 단체라고 설명했으며, 그의 군자금 모금 또한 친일한인들과 합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변호함으로써 형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다. 변호사들의 변호가 끝나고 편강렬은 판사로부터 최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편강렬의 최후 발언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동지를 규합할 결심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십만 명의 부하를 인솔하고 원수를 갚겠다는 결심, 마지막으로 나의 목숨이 떨어질 때까지 싸우고 싸워 동경에 조선인 총독을 두려는 결심을 했다.¹¹⁴⁾

편강렬은 최후 발언으로 자신이 만주에서 의성단을 조직한 것은 동지를 규합할 결심으로 시작한 것이며, 이후 20만 명의 부하를 인솔해 일제에 대해 원수를 갚고, 조선에 일제가 총독을 둔 것과는 반대로 일본에 조선인 총독을 두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편강렬의 이러한 공격적이며 반일적인 발언은 앞서 변호사들의 변호 내용과 상반되는 것이었으므로, 편강렬의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피의자의 기질(器質)은 엇더하나 하면 장춘경찰서 신의주경찰서와 당검사국의 취도에 의하면 실로운건(穩健)한대 이런 덤을 보와 본직은 동정을 하는 터이나 그러나 일회 공판 때에 일본 동경에 조선사람 총독을 두겠다 또는 정병 수 만 명을 인솔하고 조선독립운동을 털더히 하겠다는 것을 보면 피의자의 품은 위험한 기질을 나타내인 것이며 (중략) 대정팔년 제령 데칠호 데일쵸 데삼쵸 형벌 데이백사십륙쵸 데이백삼십오쵸 재범(再犯)에 데오십륙조제오십칠쵸와 형법소속각쵸(刑法所屬各條)에 의하여 징역 칠년(懲役七年)에 처하는 것이 해당하다고 론고를 하였다.¹¹⁵⁾

위의 인용문은 1924년 11월 3일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제2회 공판의 姜炳

114) 『시대일보』 1924년 10월 23일자 「이상전에서 득승하고 실력전을 준비중 잡혔단 의성단장 편강렬 제일공판정에서 공술」.

115) 『조선일보』 1924년 11월 5일자 「義成團長 片康烈의 二回公判. 삼일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피고는 각처에 군자청 구했던 사실을 거침없이 진술」.

峻검사의 논고를 실은 기사내용이다. 검사는 장춘경찰서나 신의주경찰서 등에서 이루어진 취조에서는 편강렬의 사상이 온건했다고 보았으나 1회 공판 때 동경에 조선인 총독을 두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보아 위험한 기질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소간이라도 재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편강렬은 변호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회 공판에서 7년형을 받게 되었다.¹¹⁶⁾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였고, 1925년 1월 1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재판의 내용은 이전의 재판과 다르지 않았고, 변호사가 편강렬의 무죄 판결을 위해 변론을 하고 증인 신청도 했지만 전부 기각되었다.¹¹⁷⁾ 편강렬은 또다시 상고했으며, 1925년 3월 16일 경성고등법원 공판을 받았지만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¹¹⁸⁾

편강렬이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편, 의성단원들은 단장을 구출하기 위해서 국내로 잠입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1924년 10월 1일자 「義成團 餘黨이 京城에 潛入. 무기를 가지고 원수를 잡고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만주(南北滿洲)와 밧 로령(露嶺)방면을 소란케하는 의성단(義成團)단장 편강렬(片康烈)이가 얼마전에 함이빈(哈爾濱)에서 일본경관에게 테포되었다는데 이 급보를 드른 의성단원들은 대경실색하야 그를 석방하라고 극력활동을 하였스나 일본 경관들은 중시 듯시 안는고로 마춤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가지로 장래의 방침을 연구하든 중 그들은 일이 이에 이른지라 현연히 할 시기가 아닌 즉 우리는 적극덕으로 최후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야 무슨 계획을 한 후 단원 십 여인이 룡혈포 외기타 무기를 가지고 몇칠 전에 비밀히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 내디에 잠입하야 방금 경성 시내에 잠복하고 여러가지로 비밀활동을 하는 형적이 잇다 하야 시내종로경찰서 고등계에서는 대활동을 개시하야 범인검거에 로력 중이라는데 불원간 무슨 유력한 증거를 발견될 듯 하다더라.

위의 기사내용과 같이 편강렬이 재판을 받는 동안 의성단원들은 육혈포와 권총

116) 『조선일보』 1924년 11월 5일자 「義成團長 片康烈의 二回公判. 삼일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피고는 각처에 군자청 구했던 사실을 거침없이 진술」.

117) 『조선일보』 1925년 1월 17일자 「의성단장 片康烈 公소공판개정」.

118) 『동아일보』 1925년 3월 17일자 「上告가 棄却된 義成團長 片康烈, 언도 기일은 아즉 미딩이라고」.

등 무기를 소지하고 경성에 잠입해 단장의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들을 위협했다. 또한 편강렬이 빨리 풀려나지 않자 정의부에 포함되었던 의성단원들도 편강렬의 구출을 돕기 위해 경성으로 들어왔다. 이로 인해 그의 공판이 있는 날이면 일제는 경계를 삼엄히 했으며 편강렬 주변 인물들을 체포해 의성단의 국내 잠입에 대해 추궁하기도 했다.¹¹⁹⁾

여러 번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7년 형을 받은 편강렬은 평양형무소에서 신의주 형무소로 이감되어 독방에서 복역했다. 편강렬은 옥중에서 점차 건강이 악화되어 인후병, 폐렴, 결핵, 고관절, 척수염 등을 앓았으며,¹²⁰⁾ 결국 척수염이 악화되어 1927년 4월 15일 집행정지를 받고 출옥했다.¹²¹⁾ 그는 가족들과 동지들의 도움으로 평안북도 선천의 美東病院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1928년 2월 초 세브란스 의과과장과 미동병원장의 집도로 척수수술 받았으나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다.¹²²⁾

결국 다음 해인 1929년 1월 16일 편강렬은 “나 죽거든 유골을 만주 땅에 묻어 줄 것이요, 나라를 되찾기 전에는 고국으로 이장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순국했다.¹²³⁾ 그의 유해는 그의 동생 편덕렬이 만주 안동현 錦江山에 모셨으나 현재는 그 위치를 찾을 수 없고, 1980년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남산동 남산공원에 ‘義士片康烈先生殉國記念碑’를 건립해 그의 공을 기리고 있다.

119) 『동아일보』 1924년 10월 1일자 「北滿洲의 義成團員入京說, 시정기념을 압해두고 무기를 가지고 드러와; 『시대일보』 1924년 10월 1일자 「의성단원 침입 종로경찰서는 대활동을 개시; 『조선일보』 1924년 10월 1일자 「義成團 餘黨이 京城에 潛入. 무기를 가지고 원수를 잡고자; 『매일신보』 1924년 10월 1일자 「義成團員 潛入說, 鐘路署 대활동을 개시, 무기를 가지고 경성에 들어와 군자금을 모집한 행적이 있다; 『조선일보』 1924년 10월 2일자 「경찰부 非常活動 의성단잠입 설로 인함인가; 『매일신보』 1924년 11월 30일자 「義成團이 대두, 20여명 결사대가 침입하는 중; 『시대일보』 1924년 12월 24일자 「편단장의 부하들이, 의성단원이 안동현에 왔다고; 『시대일보』 1925년 1월 17일자 「편강렬제심공판 동지가 들어왔다 경계엄중」.

120) 『동아일보』 1926년 7월 13일자 「義成團長 片康烈 獄中에서 重病呻吟, 신의주형무소에서 칠년 징역지고 짓가락다가 인후병으로 위독; 『동아일보』 1926년 9월 5일자 「服役中에 頭瘡으로 義成團長片康烈重態 목에 종기가나서 고생하는 중 親族은 保釋을 申請中; 『동아일보』 1926년 9월 28일자 「義成團長片康烈重患, 아우의 소개로 치료를 바더; 『동아일보』 1927년 4월 20일자 義成團長 片康烈氏 重病, 감옥에서 나와서 병원에서 치료」.

121) 『동아일보』 1927년 5월 27일자 「片康烈氏 病勢危重」.

122) 『동아일보』 1928년 2월 15일자 「義成團長 片康烈 最後로 脊髓手術 어찌하면 회복될 듯하다고 結果는 자못 良好; 『조선일보』 1928년 2월 22일자 「義成단장의 병세 점차 赴快」.

123) 『동아일보』 1929년 1월 20일자 「片康烈 長逝, 義誠團團長 심륙일 안동현 객장에서 波瀾重疊한 四十平生; 『매일신보』 1929년 1월 20일자 「義烈團長片康烈 安東縣에서 客死 병으로 가출옥 되 았다가; 『조선일보』 1929년 1월 20일자 「의성단장 편강렬 영면」.

V. 맺음말

편강렬은 후기의병부터 1920년대 만주지역에서의 무장투쟁에 이르기까지 20여년에 걸쳐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한 식민지시기 대표적 독립운동가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앞서 살펴본 편강렬의 독립운동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가 항일독립운동 선상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편강렬은 1892년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났다. 그는 1907년 16세의 나이에 이강년부대에서 선봉장과 참모장을 맡아 활동한 것을 시작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되었다. 1908년 경기도 양주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더 이상 의병 활동으로는 국권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당시 서북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던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송실학교에 입학했으며, 신민회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그러나 신민회에 가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제에 의해 조작된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게 된다. 편강렬은 105인 사건 연루를 계기로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고, 새로운 독립운동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1914년에 출옥한 그는 선대의 고향인 경상북도 김천으로 내려가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1915년 대구에서 조직된 대한광복회에 가담하여 활동했다. 1918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황해도 연백군의 3·1운동을 주도했다. 3·1운동 이후에는 상해임시정부의 국내 비밀군사조직인 황해도주비단에 참여해 안악군의 대표를 맡아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1920년 상해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은닉하고 군자금 모금한 죄로 해주형무소에서 1년 2개월간 구금되었다.

1922년 1월 출옥한 편강렬은 상해에서 열리는 국민대표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1921년 11월 만주로 망명했다. 그러나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자 이에 실망한 편강렬은 의열투쟁을 목표로 1923년 7월 의성단을 조직했다. 의성단은 길림·장춘 등 중만주지역을 중심으로 친일한인들을 상대로 군자금을 모금하고, 일본관공서를 공격하는 등 격렬한 활동을 벌였다. 지방조직과 연락기관을 설치하여 세력을 넓히

는 동시에 국내로의 잠입을 시도했고, 중만주지역에서 소작농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이뿐 아니라 양기탁과 함께 진 만주에 소개한 독립단체의 통합을 위해 활발히 활동했으며 1925년 정의부가 조직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편강렬은 1924년 7월 하얼빈에서 체포되었고, 6개월 간 법정투쟁을 벌였지만 결국 7년 형을 받게 되었다. 신의주형무소 독방에서 복역하던 그는 지병이 악화되어 1927년 4월 보석으로 출옥하게 되었으나 병세가 나아지지 않아 1929년 1월 서른여덟의 젊은 나이에 순국하면서, 1907년부터 시작된 20여년의 독립운동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편강렬의 독립운동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새로운 독립운동 노선을 상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의병 활동, 애국계몽운동, 무장투쟁 등 다양한 운동 노선의 운동을 전개했다. 일반적으로 의병 활동에서 무장투쟁으로 또는 애국계몽운동에서 무장투쟁으로 노선이 변화하는 경우는 있지만 위와 같은 편강렬의 노선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장춘, 길림, 공주령(옛 지명 회덕현), 이통현 등 중만주일대의 항일투쟁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학계의 연구는 연길 등 동만주 일대, 유하현, 통화현, 집안현 등 남만주 일대, 영안현 등 북만주 일대에 대하여 주로 연구된 반면, 중만주지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많은 일본인들과 친일파 조선인이 거주하고, 일본영사관이 위치해 있는 장춘, 길림 등의 도시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투쟁방식이 필요했는데, 편강렬의 의성단 활동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편강렬의 독립을 위한 투쟁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독립운동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1. 자료

1) 족보

『浙江片氏家乘譜』下, 浙江片氏家乘譜所, 2000.

2) 재판기록

「편덕렬 판결문」, 고등법원, 1921년 5월 23일.

「편강렬 판결문」, 고등법원, 1925년 3월 30일.

3) 1920년대 편강렬 관련 각종 일본 측 기록

『本邦人在留禁止關係雜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37~41.

JACAR (아시아역사자료센터) Ref.A03023726000、滿洲及東部内蒙古ニ於ケル馬賊ト不逞鮮人」, 『各種情報資料・参情報』(国立公文書館).

4) 신문

『獨立新聞』 『皇城新聞』 『東亞日報』 『每日申報』 『時代日報』 『新韓民報』

『朝鮮日報』 『中外日報』

5) 105인 사건 관련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1~2;105人事件公判始末書, 1986.

_____,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4;105人事件訊問調書, 1987.

2. 연구저서

- 鮮于燾, 『民族의 受難: 百五人事件真相』, 출판사불명, 1948.
- 朴永朗·金舜根·李斗範 共編, 『獨立血史』, 大韓文化情報社, 1949.
- 吳在植, 『抗日殉國義烈士傳』, 行政新聞社 出版局, 1958.
- 金承學, 『韓國獨立史』, 獨立文化社, 1965.
- 崔明植, 『安岳事件과 三·一運動과 나: 兢虛 崔明植先生 略傳과 自叙』, 兢虛傳記編纂委員會, 1970.
- 蔡根植, 『武裝獨立運動 秘史』, 大韓民國公報處, 1985.
- 金必子, 『梁起鐸의 民族運動』, 地球文化社, 1988.
- 南岡文化財團, 『南岡李昇薰과 民族運動』, 1988.
- 유동식,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1(1884-1992)』,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1994.
- 김구 ·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 승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승실대학교100년사』 1, 1997.
- 朴敏泳, 『大韓帝國期 義兵研究』, 한울, 1997.
-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엮음, 『中國東北지역 韓國獨立運動史』, 집문당, 1997.
- 金泉市, 『金泉市史』, 김천시사편찬위원회, 1999.
- 蔡永國, 『韓民族의 만주독립운동과 正義府』, 국학자료원, 2000.
- 우강양기탁선생전집편찬위원회, 『靄崗梁起鐸全集』, 동방미디어, 2002.
- 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회, 『雲崗李康季先生 倡義日錄』, 都倡義大將雲崗李康季先生 記念事業會, 2005.
- 柳麟錫 著; 독립기념관 편역, 『(국역) 의암집』, 제천문화원, 2009.
- 이현주, 『1920년대 재중항일세력의 통일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 홍영기, 『한말 후기의병』,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 송기동, 『김천의 마을과 전설』, 김천문화원, 2010.
- 김성민, 『양기탁: 계몽운동에서 무장투쟁까지의 선도자』, 역사공간, 2012.
- 윤경로, 『(개정증보판)105인 事件과 新民會研究』, 한성대학교출판부, 2012.

3. 연구논문

- 趙東杰, 「大韓光復會 研究」, 『韓國史研究』 43, 1983.
- 愼鏞廈, 「全國 十三道倡義大陣所의 聯合義兵運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1987
- 尹慶老, 「梁起鐸과 民族運動」, 『국사관논총』 10, 1989.
- 鄭濟愚, 「韓末 黃海道地域 義兵의 抗戰」,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1993.
- 신광철, 「황해도지역 교회의 역사」, 『한국기독교와 역사』 3, 1994.
- 蔡永國, 「1920년대 중반 南滿地域 獨立軍團의 整備와 活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 1994.
- 조철행, 「국민대표회(1921~1923) 연구 : 개조파·창조파의 민족해방운동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1995.
- 蔡永國, 「正義府의 成立과 中央組織」,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0, 1996.
- 김태국, 「滿洲地域 '朝鮮人 民會' 研究」,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박사논문, 2001.
- 李成雨, 「籌備團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5, 2003.
- _____, 「光復會研究」, 충남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2007.
- 권대웅, 「朴尙鎭의 생애와 독립운동」, 『동학연구』 28, 2010.
- 조철행, 「國民代表會 前後 민족운동 최고기관 조직론 연구」,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2011.
- 윤경로, 「「105인사건」 피의자의 사건 이후 행적과 활동 -국외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19인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2, 2012.
- 김영장, 「양기탁의 서간도지역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 2013.
- 양정필, 「1930년대 중반 개성자본가의 만주 진출과 농업투자」, 『역사문제연구』 29, 2013.